

# 조선시대 양반의 혼인연령과 재혼금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 -문집, 족보를 중심으로-

박희진  
(낙성대 경제연구소)

### I. 머리말

피임에 의한 인구조절이 있기 전인 전근대사회에서 인구 및 출산조절은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존재해 왔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유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과 유배우출산율(marital fertility rate)과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혼인 후 피임을 통한 억제는 크지 않았으며, 혼인연령(age at marriage)이나 독신비율과 같은 혼인관습을 통해 출산력을 조정하고 있다.(von de walle, 1983:201-223) 동아시아에서는 혼인연령의 조절을 통한 출산력(fertility) 조절 보다는 영아살해(infanticide)와 같은 출산 후 조절행위 등을 통해 인구를 조절하여 왔다. 그러나 여성의 혼인연령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나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전근대 유럽이나 1950년대 이후 한국의 출산력은 혼인연령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경우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혼인연령의 조절을 통한 인구조절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전통사회에서 출산율은 모유수유, 성행위 횟수 등과 같은 생리학적 요인들을 제외한다면 혼인 및 출산 전후의 암묵적인 사회적 규범과 관습 등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된다.

현재 한국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되고 있는 조선사회의 혼인 및 출산관습은 조혼, 남아선호, 여성의 再婚禁止 등이다. 현재 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선후기 이후 조선사회에서 한 가계의 가장은 남자자손을 통해 대를 이어나가야 할 의무가 있었다. 혼인을 해서 남자아이를 출산하여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종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일찍 혼인하여 제사를 모실 남자아이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자식이 많으면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영아살해가 광범위하게 존재 했다면 문헌이나 구전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문헌자료나 구전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아살해는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다출산에 대해 호의적인 관념을 가졌다면 어떠한 출산조절 방식은 없었는가. 논문에서는 혼인연령과 재혼금지 등을 중심으로 이들이 출산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조선시대 개인들의 생애를 기록한 행장이나 연보, 지명류 등과 족보 및 혼서 등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자료에 대해 검토하고, 3장에서는 먼저

혼인연령, 4장에서는 재혼금지, 5장에서는 두 요소가 순재생산력(net reproduction)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자료

양반의 혼인과 출산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문집류와 족보이다. 조선시대 文集은 한 개인의 저작물을 모두 망라한 개인전집이다. 주로 사망 후 제자들이나 자손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서문, 목록, 본문, 부록, 발문 순으로 엮는다. 서문은 대개 책의 제일 앞에 기록한다. 목록은 내용을 미리 알려줘 열람의 편의를 주기 위한 것으로, 각 권의 목록을 모아 전체목록을 나타내기도 하고 각 권마다 따로 권두에 붙이기도 한다. 본문은 대개 奏疏, 詩, 書, 序, 記, 箴, 銘, 哀辭, 祭文, 誌狀, 附錄의 순으로 편집된다. 부록은 본문의 명, 애사, 제문, 지장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저자의 기록인 것과는 달리 저자 본인에 대한 행장, 유사 또는 그를 애도하는 만사(輓辭), 뇌사, 제문과 기타의 글들로 문집의 마지막에 수록하였다. 발문은 문집의 편찬과 간행의 경위, 그 외 남길만한 것들을 밝혀 놓은 것으로 간행자가 쓴다.

문집간행의 원래 목적은 훌륭한 선비의 저작물을 모아 후세에 남긴다는 것이지만, 조선사회는 조상숭배와 혈족의 결속이 강한 사회였으므로, 저자와 관련된 혈연 및 학연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실적으로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의 인정과 경제적 능력이 담보되어야 했으므로 문집을 발간한 가문은 상층양반계층이다. 그러므로 문집자료는 조선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층의 혼인과 출산의 추이를 보여 준다. 실제 조사대상 남성 중 60%이상이 벼슬을 한 사람이며, 여성의 경우도 대체로 그들의 婦人이나 女息들이다.(자료에 관한 사항은 2007 참조)

현재 존재하는 한적문헌 중 족보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이 중 혼인 및 출산에 관련된 부분은 주로 본문의 誌銘<sup>1)</sup>, 죽은 사람을 추도하는 哀詞나 祭文<sup>2)</sup>, 行狀<sup>3)</sup>과 부록의 연보와 행장 부분이다. 이들 자료는 개인들의 전기를 기록한 것이므로 출생과 행적 및 사망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혼인연령에 관한 정보는 주로 여성들의 행장이나 지명에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양반의 출생, 혼인, 사망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1) 죽은 사람의 성명, 나고 죽은 날, 행적, 무덤의 소재, 좌향(坐向) 등을 적은 글. 옥이나 돌에 새기는 것을 말한다. 광지(壙誌), 묘지(墓誌), 지장(誌狀) 등으로 표기한다. 銘文은 주로 사적을 기념하여 기록하거나 동시에 그 사적을 이룩한 사람의 공로를 찬양하기 위해 중국 후한시대 이후 이것이 죽은 사람에 대한 일생에 관한 행적을 기록한 碑銘 墓銘 등이 생겼는데, 한국에서도 이것을 본떠 비명 묘명이 제작되었다.(자세한 내용은 김용선, 2006:67-85 참조)
- 2) 哀詞나 祭文 모두 죽음을 슬퍼하는 뜻을 나타내는 추도문이지만, 애사는 주로 친한 친지나 자식 등 천수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품성과 사망원인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반면에 哀詞가 사망자에 대한 자신의 안타까움을 글로 표현한 것이라면, 祭文은 제물을 올린 다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작성한 추도문이다.
- 3)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평생에 지낸 이력과 업적을 기록한 글로써 죽은 사람의 제자나 친구, 옛날 동료 또는 아들이 죽은 사람의 世系 성명 자호 官爵 생몰 등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과 그 사람의 행적 등을 서술하였다. 행장은 후일 죽은 사람의 명문(銘文) 판장 비문 전기 등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작성되었다.

<표1> 시기별 혼인자료

|        | before 14C | 15C | 16C | 17C | 18C | 19C | 20C | Total |
|--------|------------|-----|-----|-----|-----|-----|-----|-------|
| Male   | 5          | 19  | 119 | 124 | 137 | 178 | 66  | 648   |
| Female | 2          | 4   | 21  | 49  | 128 | 184 | 57  | 445   |

연구에 사용된 문집자료는 주로 민족문화추진회에서 『文集總刊』으로 발간된 총 650종의 문집자료이며, 이 중 이미 상당수인 500여 종은 디지털화로 작성되어 있다 (<http://www.minchu.or.kr>). 혼인에 관한 자료는 주로 여성들이나 저자들의 일대기를 연도별로 정리한 연보에 잘 나타나 있다. 전체 3,04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중 혼인연도가 표기되어 있는 700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sup>4)</sup>

수집된 자료의 성격은 상층양반의 혼인기록이다. 전체 대상자의 60%가 관직을 역임하였고, 이중 10%는 당상관이상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양반 중에서도 상층양반의 자료임을 알 수 있다.

문집자료 외에 이 자료에는 이미 수집된 자료 393명의 혼서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출생과 사망에 관한 자료는 전주이씨 무안대군파, 전주이씨 장천군파, 강릉김씨 6개파, 함양박씨 정랑공파 족보 등에서 추출한 14,068명의 자료가 이용되었다.<sup>5)</sup>

### Ⅲ. 혼인연령

<표2> 50년 단위별 혼인연령

| 구간      | 남성    | 첫째부인  | 둘째부인  |
|---------|-------|-------|-------|
| 1400-99 | 12.83 | 17.43 |       |
| 1500-49 | 15.33 | 17.98 |       |
| 1550-99 | 15.50 | 18.03 |       |
| 1600-49 | 16.35 | 17.46 |       |
| 1650-99 | 17.21 | 16.21 | 18.00 |
| 1700-49 | 17.05 | 16.15 | 21.57 |
| 1750-99 | 16.09 | 15.19 | 18.60 |
| 1800-49 | 17.30 | 16.50 | 19.45 |
| 1850-99 | 16.80 | 15.54 | 20.83 |
| 1900-49 | 16.67 | 16.33 | 17.50 |
| 1950-   | 21.71 | 25.33 |       |
| 평균      | 16.76 | 16.67 | 19.63 |

혼인은 출산을 위한 사회적 공식적 합의를 의미한다. 조선사회에서 양반들의 혼인관습의 특징은 크게 조혼, 그리고 여성배우자의 재가금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조혼풍습은 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이다. 물론 25-29세의 유럽이나 20-26세의 일본의 경우는 예외이긴 하지만, 16-19세의 혼인연령을 보이는 중국을 비롯한 전근대 아시아 및 아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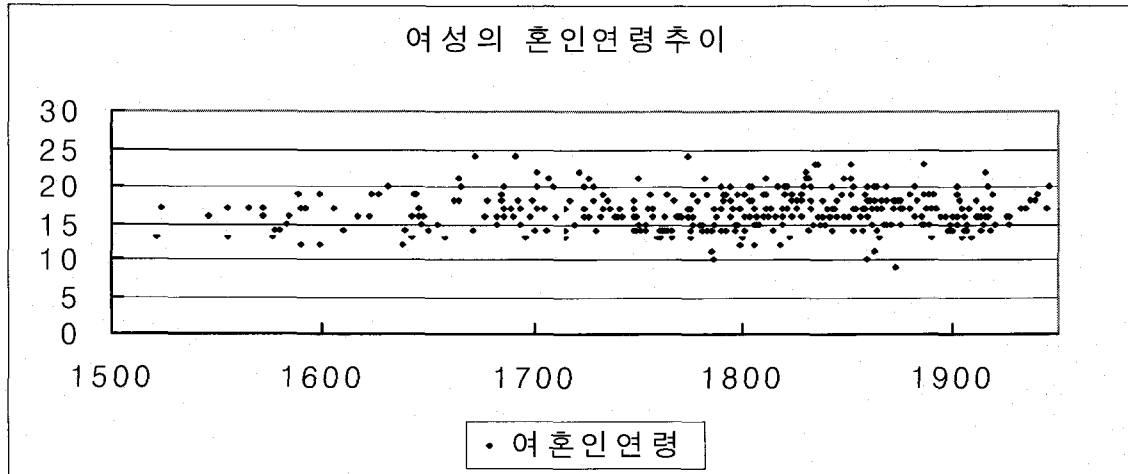
4) 혼서자료에 관한 설명은 박희진, 2006;5-6참조.

5) 족보에 관한 자료설명은 박희진·차명수, 2003;6-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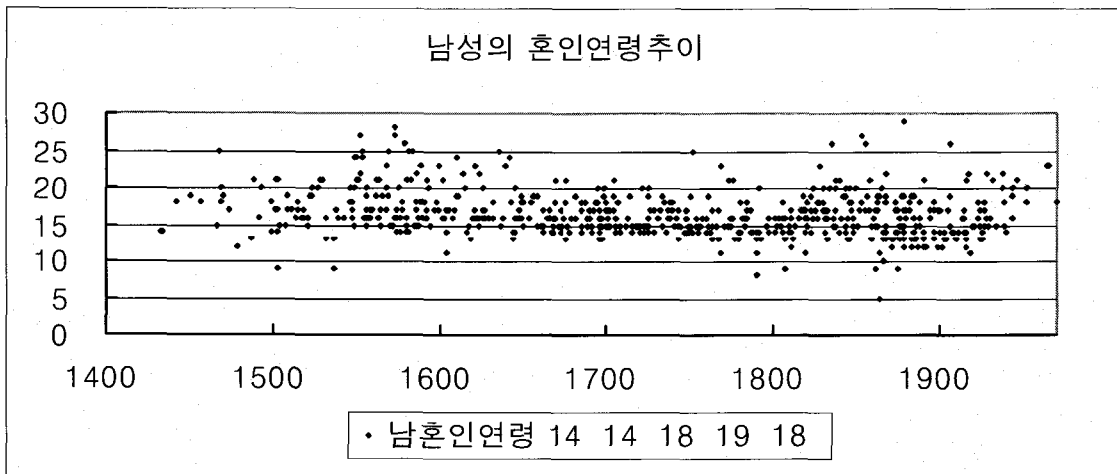
리카사회에서 조혼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Lee&Campbell, 1997, 89; Lee &Wang, 1999, 67; Tsuya, 2001, 112-114)

<그림2> 혼인연령 추이

A. 여성의 혼인연령추이, 1400-1945



B. 남성의 혼인연령추이, 1600-1945



초혼연령의 추세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고, 초혼연령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계수를 추정하였다. 시기구분은 임진왜란과 식민지화라는 두 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혼인연령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1400-1599, 1600-1899, 1900년 이후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남성은 전체구간에서 혼인연령이 하락하는 추세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혼인연령은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만을 보면 여성의 혼인연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남성의 혼인연령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남녀 모두 1900년을 기점으로 혼인연령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민지를 계기로 의료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사망력의 감소와 교육 및 취업기회의 확산으로 혼인관습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시간에 대한 혼인연령의 회귀분석결과, 1400-1945

| 남성        |     |         |         |         |                |
|-----------|-----|---------|---------|---------|----------------|
|           | N   | Coeff.  | t stat. | P-value | R <sup>2</sup> |
| 1400-1899 | 575 | -0.006  | -5.9871 | 0.000   | 0.0588         |
| 1400-1599 | 143 | 0.0077  | 1.4536  | 0.148   | 0.0147         |
| 1600-1899 | 433 | -0.0048 | -3.0317 | 0.002   | 0.0208         |
| 1900-     | 65  | 0.1666  | 7.3594  | 0.000   | 0.4622         |
| 여성        |     |         |         |         |                |
| 1400-1899 | 336 | 0.0045  | 3.3143  | 0.001   | 0.0318         |
| 1400-1599 | 52  | 0.0913  | 5.5147  | 1.229   | 0.3782         |
| 1600-1899 | 312 | 0.0007  | 0.3862  | 0.699   | 0.0004         |
| 1900-     | 25  | 0.0094  | 1.8108  | 0.083   | 0.1247         |

#### IV. 여성의 재혼금지

조선사회는 재력이 있는 경우 양인이나 노비출신의 첩을 둘 수 있었으므로 조선사회의 혼인양태는 실제적으로는 1부1처제가 아닌 일부다처제이다. 그러나 사회가 인정하는 정식배우자는 1부 1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족보에 配, 室, 娶 등으로 표시된 여성들은 모두 정식배우자들이다. 정식처의 경우는 전처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만 정식으로 새로운 배우자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남성의 재혼은 자유롭게 허용되었으며, 50세 이하의 90%이상의 남성이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재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혼시기도 자료 77명과 삼혼자료 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3과 같이 전처가 사망한 이후 1-3년 내에 남성들은 70% 이상이 재혼하고 있다.

<표 4> 첫째부인 사망후 재혼까지 걸린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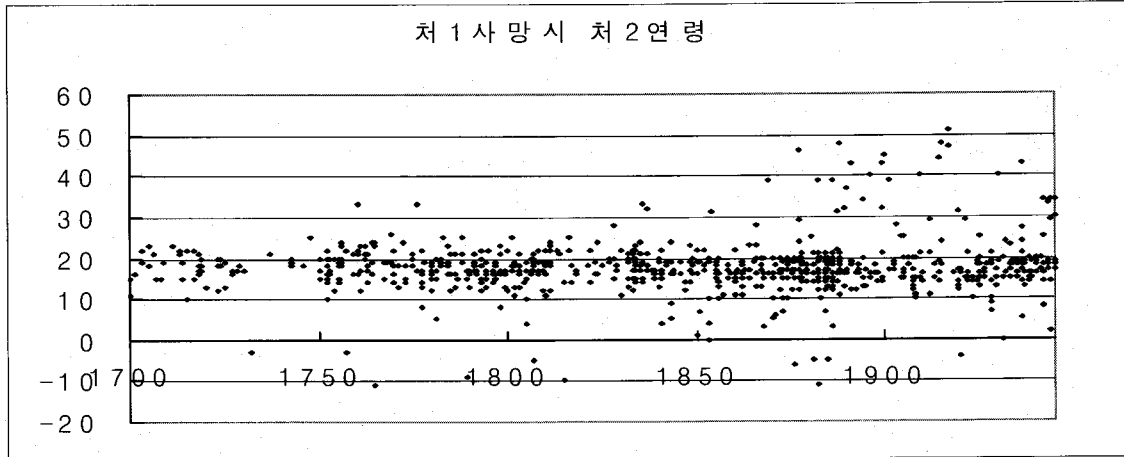
|    | 1년 이하  | 1-2    | 2-3    | 3-5    | 6-10   | 10년 이상 |
|----|--------|--------|--------|--------|--------|--------|
| 재혼 | 15.584 | 38.961 | 23.377 | 16.883 | 3.8961 | 1.2987 |
| 삼혼 | 42.857 | 28.571 | 14.286 | 0      | 14.286 | 0      |

반면에 양반여성의 경우 재혼은 금기시되어 왔다. 조선후기 양반들의 경우 재혼한 여성의 자식들은 관직에 나갈 수 없었으며, 재혼한 여성 또는 그 집안도 양반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에 열녀는 가문의 자랑으로 여겨졌으며, 열녀의 조건도 후기로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17세기 이후 조선사회는 종법질서가 강화에 따른 양반여성의 재혼이 더욱 엄격하게 지켜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8세기 이후 일반 평민들에게도 재가금지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어 왔다고 알려져 왔다.<sup>6)</sup>

권태환(1977)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전통적인 관습들이 해체되어 가던 1960년대에도 여성들이 재혼에 대해 70%이상의 과부가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정도였다.

6) 자세한 내용은 이능화(1991), 김건태(200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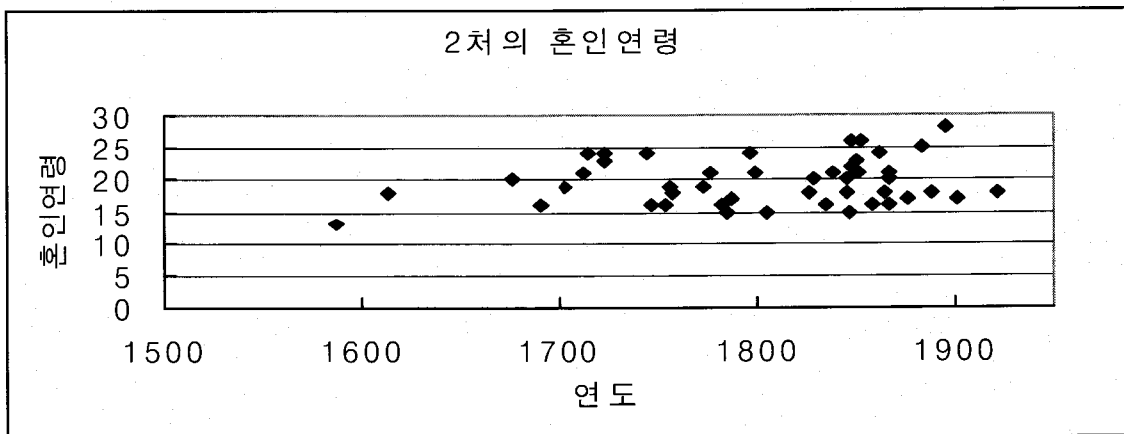
<그림 2> 첫째 부인 사망시 둘째 부인의 연령



이전 시기는 아마도 이러한 관념들이 더 강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사회에서 여성이 재혼을 한다는 것은 양반의 신분을 포기해야 됨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여성의 재혼비율을 알 수 없다. 다만 첫째부인의 사망시 둘째부인의 연령을 통해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림 2에 나타난 첫째부인의 사망시 둘째부인의 출생연도를 살펴보면 초혼연령의 여성의 평균나이보다 약 1세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추세도 초혼대상자와 유사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19세기 말 이후 분산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반여성의 이 시기 이후 양반여성의 재혼금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남성의 재혼시 여성의 평균연령은 첫째부인의 사망후 재혼을 할 것이므로 대부분 첫째부인보다는 결혼연령보다는 높은 수준의 연령에서 결혼하였다.

그림 3. 둘째부인의 혼인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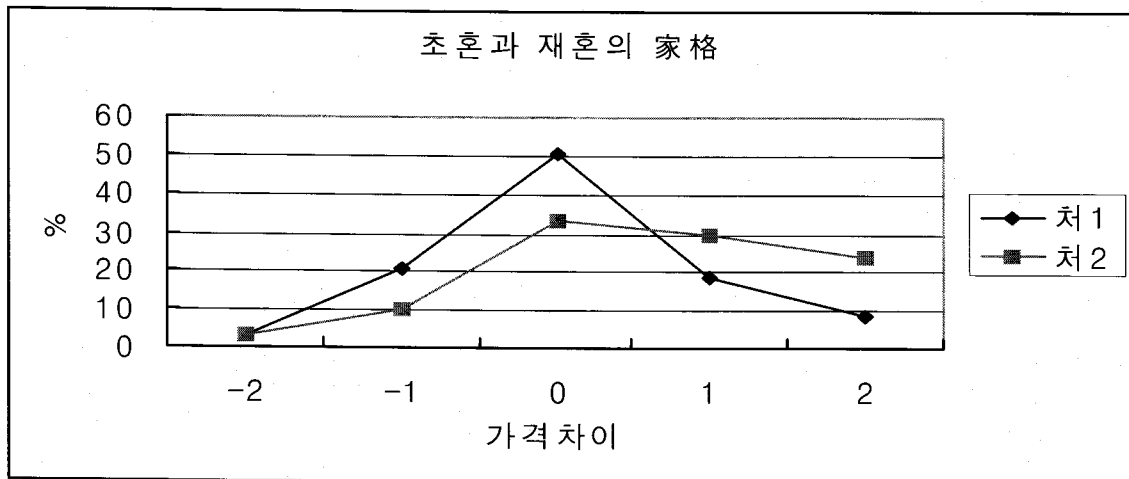


이들이 처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표3의 재혼여성의 혼인연령을 보면 평균 혼인연령대로 보아 늦은 초혼의 비율이 높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재혼연령을 알 수 있는 46명의 혼인연령은 평균 19.63세로 초혼대상자에 비해 약 2세 이상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이들의 가격도 초혼대상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4는 현재 파악할 수 있는 133명의 초혼대상자의 부의 관직을 대상으로 정삼품이상 당상관, 정6품이상 참정관, 종6품이하의 참하관으로 나누어 혼인대상자의 父의 관직을 비교한 것이다. 상층양반들은 대체로 가격이 비슷한 가문들끼리 혼인하고 있으며, 남성이 재혼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50.37%가 비슷한 품계수준의 집안과 혼인하였으며, 23.38%는 남성의 부가, 26.27%는 여성의 부가 높은 품계를 역임하고 있다.

<그림 4> 초혼과 재혼의 가격



이를 통해 볼 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상층양반의 혼인 역시 비슷한 수준의 가문 사이에 혼인이 성사되었다. 반면에 남성이 재혼을 할 경우 재혼여성의 부의 품계는 초혼에 비해 크게 떨어져 2처의 부의 관직이 높은 비율은 겨우 13.33%에 불과하며, 재혼남성의 가격이 높은 비율은 53.33%로 높아진다. 더욱이 삼혼의 경우에는 5명 모두 남성의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

## V. 혼인연령과 순재생산

혼인연령과 여성의 재가금지가 출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집 및 혼서에서 추출한 혼인연령을 족보의 출산 및 생몰기록에 연결하여 유배우기간과 무배우기간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혼인연령 외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배우기간 및 임신가능한 연령대의 무배우기간이다. 유배우 가임기간은 여성이 혼인하여 임신 가능한 기간으로, 인위적인 출산조정이 없다면 여성들의 가임기간이 길수록 출산율은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가임이 가능한 연령대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망과 재혼금지 관습으로 인해 무배우상태로 지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출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혼인연령이 출산력에서 중요한 이유는 혼인연령 그 자체가 아니라 여성의 가임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임기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혼인연령의 감소보다 더 크다면 출산력은 감소할 수 있다. 전통시대의 여성의 가임기간은 생물학적으로 15-49세로 최대 35년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 가임기간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

해 제약될 수밖에 없다. 여성의 가임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혼인연령 외에 본인과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그리고 재혼율에 의해 결정된다.<sup>7)</sup> 그러나 조선후기의 경우 이혼은 거의 무시해도 문제가 없으며, 양반여성들의 재혼은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었다. 그러므로 여성이 재혼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여성의 가임기간을 여성들의 수명과 배우자의 수명 그리고 혼인연령을 이용하여 가임기간을 측정하였다.

논문에서 이용된 족보자료는 강릉김씨 槐堂公玉街派, 慕庵公派, 副正公派, 逸老公派, 淸簡公派, 評議公派, 등 강릉김씨 6개파와 전주이씨 무안대군파, 장천군파 등 전주이씨 2개파, 함양박씨 정랑공파의 자료가 이용되었다.<sup>8)</sup> 이들 족보 중에서도 조선시대 양반들은 부인의 생존시는 1부1처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남성들의 경우 부인의 사망시 재혼이 가능하였으므로 여러 명의 처가 있을 경우 태어난 자식이 누구의 소생인가를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논문에서는 출생과 사망연도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부부 중 남녀 모두 1명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출산에 관한 자료는 부부사이에 태어난 출생자식수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전체 18,372 명 중 3,536명이며, 추정구간은 1700년 이전 족보기록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1700-1900년 구간으로 하였다.(박희진·차명수, 2003; 차명수, 2004)

<표 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00-1900

|                  | Coeff.   | t-static | P-value |
|------------------|----------|----------|---------|
| Female           | 0.134979 | 1.4887   | 0.1366  |
| Male             | -0.18187 | -2.3763  | 0.0175  |
| Marital duration | 0.030071 | 4.5345   | 0.0000  |
| Widow duration   | -0.02246 | -3.3738  | 0.0007  |
| R <sup>2</sup>   | 0.129688 |          |         |

수유기간, 피임, 성교회수, 혼인에 관한 관습 등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출산 자식수는 여성의 혼인연령보다는 남성의 혼인연령, 유배우기간, 무배우기간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에 대한 여성의 혼인연령 추이가 17세기 중반이후 초경연령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희진, 2006; 15-16)

반면에 유배우 기간이나 무배우 기간은 자신과 배우자의 사망력과 혼인연령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시기 자식수는 성인사망력과 재혼금지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족보에 나타난 자식수는 원칙적으로 혼인이후까지 생존한 사람들이므로 출산력이 아니라 다음세대의 출산력과 관련이 있는 순재생산력(Net Reproduction)이다. 남녀의 출산성비가 105정도 일정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남자자식수를 여자자식수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만약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18-19세기 조선사회의 재생산력이 주로 남성의 혼인연령이나 사망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대만 지역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유아사망률이 높아지면 각 가문에서는 빨리 출산할 수 있도록 혼인연령을 앞당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chultz, 1980, 230).

7) 이 외에도 수유기간, 별거여부 등도 가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8) 족보데이터에 관한 내용은 차명수(2004:3-7)를 참조.



## VI. 마무리

이상에서 조선사회의 혼인과 연령의 추이와 순재생산력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 보았다. 조선사회에서 여성의 혼인연령은 15-19세기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혼인연령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세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남성의 혼인연령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성의 혼인연령은 성인사망력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18세기 이후 성인사망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조선의 양반들은 가계를 계승하기 위해 남성의 조혼화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가임가능 연령이 되어야 아이를 출산할 수 있으므로 여성의 혼인연령은 초경연령(menarche age)을 중심으로 혼인연령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sup>9)</sup> 이는 부계중심사회에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성의 혼인연령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혼인연령과 더불어 양반여성의 재혼금지도 조선시대 양반이 순재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참고문헌

- 김용선(2006), 「동아시아 중세사회의 금석문: 고려시대 묘지명 문화의 전개와 그 자료적 특성」, 『대동문화연구』 55.
- 박희진(2002), 「조선후기 가계당 평균구수 추세 - 족보를 이용한 가족재구성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33.
- \_\_\_\_\_(2006), 「양반의 혼인연령-혼서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40.
- 박희진·차명수(2003), 「조선후기와 일제시대의 인구변동-전주이씨 장천군파와 함양박씨 정량공파 족보의 분석-」, 『경제사학』 35, 3-27.
- 이능화(1991), 『조선여속고』, 동문선신예신서.
- 차명수(2004), 「양반들의 출생과 사망, 1700-1938: 네 족보의 분석」, 경제사학회 연말대회 발표논문.
- Bloom, David E. and P. H. Reddy(1986), Age Patterns of Women at Marriage, Cohabitation, and First Birth in India, *Demography* 23(4):509-523.
- Caldwell, J.C., P. H. Reddy and Pat Caldwell(1983), "The Causes of Marriage Change in South India, *Populations Studies*, 37(3), 343-361.
- Coale, Ansley J. and Susan Watkins, Cotts, eds., (1986) *The Decline of Fertility in Europe*: Princeton University.
- Harrell, Stevan(1985), "The Rich Get Children: Segmentation, Stratifications, and Population in Three Chekiang Lineages, 1550-1850" in Hanley, Susan B. and Wolf, Arthur P. ed., *Family and Population in East Asian History*: Stanford University Press.
- Huang, Philip C. C. (2002) "Development or Involution in Eighteenth-Century Britain and China?-A Review of Kenneth Pomeranz's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Journal of Asian Studies* 61(2):501-538.
- Kim, Kuen-Tae(2005) "Eighteenth-century Korean marriage customs: the Tansŏng census registers", *Continuity and Change* 20(2), 193-209.

9) 조선 여성들의 초경연령은 박희진(2006) 참조.

- Knodel, John(1967), "Infant Mortality and Fertility in three Bavarian village: An Analysis of Family Histories from the 19th Century", *Population Studies* 22,297-317.
- Kwon, T. H(1977), *Demography of Korea*, Seoul National Univ. Press
- Laslett, p(1977), 'Characteristics of Western family considerde over time', *Journal of Family History*, 2(2): 89-116.
- Lee, James Z., Cameron Campbell and Guofu Tan(1992) "Infanticide and Family Planning in Late Imperial China: the Price and Population History of Rural Liaoning, 1774-1873," in Thomas Rawski and Lillian M. Li, eds., *Chinese History in Historical Perspectiv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e, James Z., Cameron Campbell and Feng Wang(1993) "The Last Emperors: An Introduction to the Demography of the Qing (1644-1911) Imperial Lineage) in Reher, David S. and Roger Schofield, eds., *Old and New Methods in Historical Demography*. Oxford: Clarendon Pres.
- Lee, James Z. and Cameron Campbell (1997) *Fate and fortune in rural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yuzumi, Taketeru(1939)," The Survey of the Physical Standards of women workers" *Korea* 291, 46-57.
- Preston, Samuel H., Patrick Heuveline and Michel Guillot(2001), *Demography: Measuring and Modeling Population Processes*. Oxford: Blackwell.
- Scott, Susan and C. J. Duncan(2000), "Interacting effects of nutrition and social class differentials on fertility and infant mortality in a pre-industrial population", *Population Studies* 54:71-87
- Tsuya, Noriko(2001). Patterns of Fertility and Nuptiality in a Fishing Village in Southwestern Tokugawa Japan, eds. Ts ui -jung Liu, James Lee, David Seven Reher, Osamu Saito, Wang Feng, in the *Asian Population History*: Oxford unveresity Press.
- Udry, J. Richard and R. L. Cliquet(1982),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ges at Menarche, Marriage, and First Birth", *Demography* 19(1), 53-63.